



경제위기와 농업, 그리고 농업인들의 대응방안

미국의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의 거품이 꺼지면서 생긴 금융위기로 세계의 주가가격과 집값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10년 만에 겨우 2만 불을 넘겼던 국민소득은 다시 1만 3~4천불대로 추락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주식과 집값이 반토막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가난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수출도 줄어들어 따라 IMF 때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한다.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업을 하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드높아지고, 근로자들은 이런 위기에 허허벌판으로 내몰릴까를 걱정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실업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단단하게 닫고 있다. 더 나쁜 소식은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적어도 2~3년은 갈 거라고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 농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정부, 국책연구원, 또는 농업경제학의 대가

가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면 좋겠지만, 필자의 과문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단한 전문가도 아닌 필자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감히 답을 모색해보려는 시도는 만용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께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상식 수준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농업 부문의 파급 효과는 적을 것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한다면, 농업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경제위기의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점이 위안이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경제침체기에도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원리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옷 따위는 구입을 미룰 수 있지만, 먹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농산물 중에서도 한

농업계는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강해진다.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이나 면세유 불법유통과 같은 세금유용 행위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된다. 몇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농업계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할지 모른다. FTA가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우고기와 같이 값이 비싼 농산물은 수요가 좀 더 많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경기에는 외식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식당에서 주로 소비되는 농산물수요도 많이 줄어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유와 사료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그동안 우리 농가경제를 압박했던 농자재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비록 환율이 상승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위안화와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입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므로 농산물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800원대까지 내려갔던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이 1,300원 대까지 상승했으므로 대일 수출은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농업 부문은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나빠져도 정부 예산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농업 부문의 경제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다. 농민에게는 작지만 직불금과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농업투융자사업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규모를 늘리고, 시설을 개선하기에 오히려 유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불경기에는 보다 싼값에 농지를 매입할 수 있고(특히, 이번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침체가 2~3년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므로 생산·출하시점을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 어디서 찾아야 할까?

불경기에는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는 게 상책이다. 돈을 벌기가 어렵고, 이자율도 높아 돈의 가치가 높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집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규모를 늘리고, 시설을 개선하기에 오히려 유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불경기에는 보다 싼값에 농지를 매입할 수 있고 (특히, 이번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침체가 2~3년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므로 생산·출하시점을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나 생산현장에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다시 한 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조명기구의 전력용량이나 난방기의 온도도 따져보고,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가축이나 작물의 상태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미리 조치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와 농기계의 운전습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자동차나 농기계의 수명을 1년만 늘려도 큰 절약이 된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개선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 하지 않던가.

불황기에는 부도내는 기업이나 상인이 많으므로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다 안전한 거래선을 이용하거나, 사전에 채권을 확보하는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신용거래를 해온 상인을 냉정하게 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외상 판매금액을 늘려주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 그 상인도 본의 아니게 부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대금 지불이 보장된 도매시장이나 농협 공판장으로 더 많은 물량을 출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농업계는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강해진다.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이나 면세유 불법유통과 같은 세금유용 행위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된다. 몇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농업계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할지 모른다. FTA가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불황기는 호황기를 대비해 힘을 축적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내 작목의 기술적, 경영적인 특성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한다든지, 농촌관광이나 체험농업 등 농외사업

요령에 대해 공부한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 방법을 익힌다든지 하는 시간은 단순한 생산 활동 시간보다 어찌면 더 생산적이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농기계 및 자동차 수리, 용접, 목공 등 특별한 기술을 익히는 것도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다. 고장 수리를 맡기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농한기에는 고소득 농외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가 불황기에 있든, 호황기에 있든 우리 농민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은 농민들의 협동정신과 자강정신을 드높이는 것이다. 아무리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과잉이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농민들이 품목별, 부류별로 '대표조직'을 만들어 수급조정을 하고, 판매와 가공, 수출 등 2, 3차 산업까지 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표조직'을 만들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농민의 뜻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에도 농민의 뜻,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귀농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귀농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농업은 보다 안정적이고, 기회도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농업은 불경기에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여지도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부단히 스스로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